

◇중국에서 미륵불의 화신으로 불리우는 포대화상을 닮은 성운스님의 서원은 정토사회를 구현하는것이다.

하기도 하면서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일깨워 중국불교가 기사회생하는데 청량제의 역할을 했습니다. 포교 방식은 시대에 맞게 상대방의 근기에 맞아야 하며, 불법(佛法)과 인간생활은 둘이 아니고 조화를 이뤄 하나가 되게 해야 한다는 것이 태허대사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위대한 스승이 있어야 좋은 제자들이 많습니다. 아울러 훌륭한 제자들을 양성해야 불교의 미래가 보장됩니다."

▲큰스님께서는 35년만에 인적, 물적으로 엄청난 불사를 이루었습니다. 이런 불사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남다른 노력이 필요했을 텐데, 가장 어려웠던 때는 어느 시기였습니까.

"불사중 어려웠던 때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주 제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50년전 맨 몸으로 대륙으로부터 대만에 와서 그동안 마흔개 이상의 절을 짓고, 양로원 고아원 학교 병원을 운영하면서도 외부에 원조를 요청하지 않으니 스님! 어떻게 해서 당신은 이렇게 수완이 좋습니까?' 하고요. 사실상 제가 무슨 대단한 수완이 있거나 특별한 재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 하고 곰곰히 생각해 보면 분명히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제가 〈유마경〉에 나오는 불청지우(不請之友: 고통받는 중생을 보면 도움을 청하지 않아도 자진해서 돕는 불보살과 같은 벗이 되라)의 정신을 실천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불광산은 도량전체가 아미타불의 극락세계를 연상하게 될 정도로 신심이 절로 나는 공간입니다. 지상에서 정토를 구현하려는 큰스님의 원력은 오랜 수행에서 우러난 법력이 없으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스님은 주로 어떤 수행을 했으며 어떤 견처를 얻으셨는지요.

"저는 좌선도 하고 염불도 하고 간경도 했습니다. (웃으면서) 하지만 제가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금강경〉에 '불법이라고 하는 것들은 불법이 아니다' 또한 '모든 법이라 하는 것 모두가 불법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이 두가지의 말에 깊은 뜻이 함축되어 있다고 느낍니다. 예를 들어 염불하고 절하고, 경 읽고, 좌선하고, 보시하고 지계를 지키는 모든 것이 불법입니다. 그러나 만약 염불하고 절하고, 경 읽고 좌선할 때 마음 속으로는 줄곧 헛된 생각과 탐진치를 일으킨다면 이는 불법적이기는 하지만 곧 불법이 아니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름지기 지혜의 빛으로 미망을 깨뜨려 비추어 마음 속의 온갖 더러움을 씻어내고, 본래 있는 '부처의 성능' 즉 불성을 드러냄으로써 마음을 잘 쓰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 "매일 매일 생활가운데 단 몇분만이라도 마음을 고요히 비춰보는 시간을 가져야합니다"

## 개인·단체·국가 어느 누구든 我相 버려야 동체화합 가능

▲큰스님께서는 한국의 조계종과 마찬가지로 임제종의 법맥(48世)을 잇고 있으면서도, 좌선수행 위주의 조계종과는 달리 생활불교를 주창하고 계십니다. 큰스님의 '인간불교' 구현은 임제종의 '평상심시도(平常心是道)'의 가르침을 현대적으로 계승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까?

"선종에서는 '평상심이 도다', '날마다 좋은 날이다(日日是好日)'고 말합니다. 진정한 선의 기쁨은 바로 특이한 것이 없는 평범한 일상생활, 즉 옷 입고 밥 먹는 가운데 있습니다. 만약 이것을 호기심으로 이해한다면 도와는 상반되어 더 멀어지기만 할 뿐입니다. '평상심이 도'라는 말은 한시라도 도에서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는 뜻으로 밥 먹고 잠자는 것, 심지어 대소변 보는 것까지도 수행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참선은 몸만 우두커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속의 비밀들을 철저하게 알아서 스스로의 마음 속에 감추어진 보배들을 잘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기억나는 수행담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12세에 출가하여, 15세에 계를 받았습니다. 제가 공부하던 시절엔 법당 안에서 눈 한번 돌려도 가차없이 스승님의 손이 날아왔습니다.

'여기 네 물건이 어디 있다고 보느냐?'

이 일이 있고 난 후부터 저는 몇 달간 눈을 뜨고 보지 않는 연습을 해 지금까지도 계단을 오르거나 길을 걸을 때 육안으로 보지 않고 심안(心眼)으로 감지하여 오르거나 걷습니다.

또 때때로 제가 철이 없어 법당 안에서 놀거나 떠들기라도 하면 스승님께서 철썩 뺨을 때리시며 '이 곳이 네가 떠들 곳이냐?' 하며 나무라셨습니다. 그 이후부터 전 일년 또는 몇 개월간 말하지 않는 연습을 했는데, 이를 묵언(默言)이라고 합니다.

간장이나 고추장, 된장, 김치를 담글 때 항아리에 담가 얼마동안 밀봉해 두면 맛이 더 순수하고 좋아지듯 제가 지금 말을 잘 할 수 있게 된 것도 바로 과거에 묵언과 말을 함부로 내뱉지 않는 연습을 통해 자신을 훈련시킨 결과입니다.

한 사람의 완성을 가속시키고 불법의 큰 길을 찾고 또 깨달음의 열매를 얻기 위해 어느때는 욕먹고 매맞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때리고 욕하는 것은 모두 불법으로 변합니다. 소위 말하는 몽둥이와 할(喝) 아래서의 선오(禪悟)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중국과 한국은 모두 민족이 분단된 채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원인과 해결책은 무엇인지요.

"한국과 중국이 통일이 안되는 것은 아집 때문입니다. 이 무의미한 아집만 버린다면 통일이 가능하겠지요. 개인이든 단체든, 국가이든 아상(我相)을 버려야만 동체화합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불경에 이르기를 '불도를 이루지 못했거든 먼저 사람들과 연을 맺으라'고 했습니다. 연을 맺는다는 것은 남과 원만하게 지내며 우호적으로 사귀는 것을 말합니다. 통일도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가운데 저절로 열릴 것입니다."

▲한국의 불자들에게 당부하실 말씀은.

"불법을 배우고 공덕을 짓는 일이 반드시 입산수도를 하거나 재산을 털어 베풀어야만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칭찬의 말 한 마디나 착한 행위, 미소, 지식들 이 모두가 널리 선연을 맺게 하고 큰 공덕을 짓게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매일의 생활 가운데 단 몇분이라도 마음을 고요하게 비추어보는 시간이 없으면 있어야 합니다. 일주일의 업무 속에서 번뇌를 씻어 맑히고 자신을 조용히 거두어들이는 훈련이 없어서는 안되며, 지지능정(知止能定 : 멈출 줄을 알면 능히 定에 들 수 있다)하여 가슴 속의 샘으로부터 끊임없이 샘물이 흘러나오게 해야 합니다. 불교는 선정(禪定) 중에 무상의 지혜가 난다고 했습니다. 깨달음을 증득하신 부처님 조차도 날마다 명상을 잊지 않으시고 깊은 선정에 드셨는데, 범부인 우리들이 고요한 마음으로 산란한 마음을 치유하지 못하면 부평초처럼 온종일 경계에 끄달려 이리저리 떠돌게 됩니다."

대만 불광산사=김재경 기자

## 설곡스님의 스님이야기

경희 스님



'눈온 뒤에 비로소 소나무와 잣나무의 지조를 알 수 있고, 어려운 일을 당해서야 바야흐로 장부의 마음씀을 알 수 있다(雪後始知松柏操, 事難方見丈夫心).' 출가인이 되어서 마음쓰기를 겨울 소나무와 잣나무 같은 기상과 절개를 가지고 대장부가 되라는 가르침이다.

숲이 무성한 여름에는 소나무나 잣나무의 푸르름을 알 수 없다. 잡목과 섞여 함께 푸르기 때문이다. 겨울이 되어 백설이 내리면 모든 잡목들은 잎을 떨구고 숲은 눈에 덮여 은색 세계가 되어버리고 만다. 그럴 때 소나무와 잣나무는 홀로 청청(靑靑)함을 지키고 의연하게 서있다. 거기에서 소나무와 잣나무의 지조(志操)를 볼 수 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평소 좋은 관계가 유지될 때는 상대방의 깊은 마음을 알 수가 없다. 별일이 없을 땐 좋은 마음을 쓸 수 있지만, 이익을 나누어야 할 때나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당장에 그 마음씀이 자기 중심이 되거나 좁아지게 된다. 평상시보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마음쓰는



것을 보면 그가 장부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이 말을 생각하면 생각나는 스님이 있다. 대구 서봉사 주지인 비구니 경희스님이다. 그분이 바로 눈온 뒤의 소나무와 잣나무 같은 분이다.

경희스님은 오대산 지장암(地藏庵)으로 동진출가를 하셨다. 거기서 방한암 스님을 뵙고 곧고 바른 출가생활을 익혔다. 6.25 전쟁이 일어나자 스님은 통도사 경봉스님을 찾아 남쪽으로 내려왔다. 이러한 인연들로 스님은 북쪽의 한암스님과 남쪽의 경봉스님을 뵈올 수 있었으니 전생의 선근 복업이 아니었다면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다.

내가 스님을 처음 뵌 것은 해인사에서다. 그 때 나는 재무실 시자로 있었다. 해인사에 계시던 어느 비구스님께서 스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것을 풀어드리기 위해 대구에서 일부러 들어온 것이었다. 남들 같으면 덮어두고 말았을 것을 비구 대중 처소까지 찾아와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려고 했다. 이렇듯 경희스님은 일을 밝고 공평하게 처리하는 것으로 이름나 있다.

스님께서는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에게는 비구와 비구니를 가리지 않음은 물론 당신 제자와 남의 제자 또한 가리지 않고 도와주신다. 늘 '나는 내 제자라고 특별히 잘해 주지 않겠다. 누구든 부처님 제자로서 잘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도와주겠다"하신다. 알게 모르게 많은 비구, 비구니들에게 학비를 도와주신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이치에 맞지 않으면 또한 비구, 비구니를 가리지 않고 거침없이 꾸짖으신다. 이에 대한 재미있는 일화가 많다.

어느 비구스님의 이야기이다. 조계종단에서는 상당히 알려진 분이다. 그 분이 영어를 공부하겠다고 외국에 나가 있을 때 오랫동안 경희스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었다. 나중에 위빠사나 수행법을 공부한다고 태국에서 수련하고 있었는데, 귀국하면 서봉사에 들러 며칠이고 머물곤 했다. 그럴 때마다 스님은 깍듯이 예를 다해 대접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젊은 스님들은 그 스님을 시봉하는 데 곤욕을 치르곤 했다. 한국의 비구니 사원에서 남방가사를 입은 한국 비구를 시봉하기가 여러 가지로 불편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 스님은 한국 비구들이 남방계를 받지 않았다고 업신여기며 한국 비구는 비구가 아니라고까지 얘기했다. 그리고 자신은 남방비구처럼 대접받고 싶어했다. 경희스님은 그 행동이 못마땅했지만 상좌들을 달래며 잘 모시라고 했다. 그러나 결국 오래 가지 못했다. 상좌스님들이 견디지 못했던 것이다.

"스님이 남방계(南方戒)를 받은 것에 대하여

### 절 방문 스님의 무례함에 "대접받을 자격없다" 쫓아내

자긍심을 가지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남방스님들처럼 정중하셔야지요. 남방스님들은 시중드는 스님들에게 무례하게 대해도 되는 것입니까? 스님은 이곳에서 대접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다시는 이곳에 발을 들여놓지 마십시오."스님은 단호했다. 그렇게 오랫동안 도와주던 스님이였지만 그가 자신의 위치를 잊고 이치에 맞지 않게 행동하는 것을 보자 당장에 모든 인연을 끊고 만 것이였다.

또 하나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다. 어느 비구가 서봉사를 찾아와 '위장수술을 하고 퇴원한지 얼마 되지 않아 병원치료를 받아야 하니 도와달라'고 했다. 배에 붕대를 두텁게 감고 비구니 도량에 와서 웃옷을 훌렁훌렁 벗어제치니 젊은 비구니 스님들은 난처했다. 그러니 얼른 치료비를 얼마 주어 보내는 것이 상책이었다. 그러나 한 달이 멀다하고 자꾸 찾아오니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니었다. 어느 날 경희스님은 점잖게 그 스님을 불러 앉히고 "그 병이 그렇게 오래도록 낫지 않으니 참 이상합니다. 그러니 내가 직접 한번 보아야겠습니다."하고는 와락 달려들어 붕대를 풀러보았다. 짐작대로 그것은 거짓이었다. 아프지도 않은 배에 붕대를 감고 비구니 도량을 찾아다니면서 괴롭혔던 것이다. 그 비구라는 자는 도망가버리고 다시 나타나지 않았음은 물론이다.(계속)

▨구미 영명사 주지


# 전강 학인 모집공고

囲照 覺性 대강백께서는 해인사, 통도사, 범어사, 백양사, 은해사, 금산사에서 20여년간 강주를 역임하시고, 서울 부산에서 재가불자에게 불교, 유교, 도교 경전을 강의하셨으며, 동국역경원 번역위원과 증의위원를 역임하시고 현재 통화총서 13집 '대도직지, 천부경, 중용직지, 유식론, 대승기신론, 능엄경정맥소현시, 화엄경론회석등등)을 발간하셨다. 큰스님께서 말년의 회향으로 역경, 포교, 도재양성 3대 불사를 목표로 하여 전강 받을 학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모집인원 : 30명
- 수업년한 : 2~4년
- 수업과목 : 동영고전과 불교학전반 및 강원 이력과목에서 선정함
- 지원자격 : 강원, 중앙승가대, 동국대 불교학부, 원광대불교학부를 이수한 자 및 유교사서를 수학하여 한문에 능통한 자이면 종단과 비구 비구니를 불문하고 지원可함
- 제출서류 : 승적사본, 교육기관 졸업증명서, 수행이력서
- 원서접수 : 불기 2546(2002)년 4월 29일 ~5월 4일까지
- 전형방법 : 서류심사, 면접시험
- 면접일시 : 불기 2546년(2002)년 5월 8일 오후 1시 부산 화엄사
- 합격자 발표 : 불기 2546(2002)년 5월 10일 (개별통보)
- 대 우 : 숙식만 제공함
- 문의 및 접수처 : 부산광역시 사상구 엄궁동 138 전화 051)324-0590

화엄학연구원 통화불교전문연수원

# 현대불교사회문화원 불교지도자 아카데미 (Buddhism Leader Academy) 스피치 과정 모집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보화 시대에 맞게 쉽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강화하고, 설법과 강의, 대중연설에 필요한 자신감을 갖추어 대중포교에 강한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 모집대상
- 설법과 강의, 대중연설에 자신있는 화술이 필요한 스님과 포교사

◇ 교육기간 : 1개월 과정 총 12회 강의

◇ 모집인원 : 선착순 30명

◇ 교육장소 : 현대불교사회문화원 교육실

◇ 개강 및 강의일정 : 5월 27일 ~ 6월 지일 매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 강의내용 : 불교스피치 방법론, 명지도자는 명스피커, 효과적인 내용구성법, 발성 및 스피치 훈련(I), 스피치 실습 및 평가(I), 연단의 자세와 제스쳐, 음성표현의 5대원리, 유머 스피치, 유명성직자 화술분석, 불교스피치 예화 사용법, 발성 및 스피치 훈련(II), 스피치 실습 및 평가(II)

◇ 원서 교부 및 접수
- 기간 : 현재 접수중(2002년 3월 15일부터 5월 25일까지)
- 장소 : 현대불교사회문화원 사무국
- 문의 : TEL : 02) 736-6940 FAX : 02) 730-1203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170 동일빌딩 603호

현대불교사회문화원 교육아카데미

# 第17回 不二賞 要綱

不二會에서는 한국불교 중흥의 선구적 역군이 될 참신한 젊은 일꾼을 육성함을 목적으로 연구 · 실천 2개 분야에 걸쳐 탁월한 가능성을 보인 젊은 인재를 발굴, 그들의 보다 알찬 발전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본 상을 제정 매년 1회 시행합니다.

1. 시상분야
가. 연구분야
① 대학원 석사과정수료 이상의 학력자로서 대학에서 시간강사 이상, 조교수 이하의 직에 있는 자로서,
② 최근 2년 동안 업적 중 불교학(불교를 중심으로 하는 역사 · 철학 · 문학 · 예술 · 비교사상, 기타) 관계의 탁월한 연구 성과를 올린 40세 전후인 자.
나. 실천분야
① 불교에 입문하여 7년이 경과한 불자로서,
② 신행과 포교가 모범이 되는 자로서 연령 제한 없음.
2. 시상규모 : 각 분야별 1명 500만원
3. 후보자 제출서류
가. 후보자 추천 카드(본회 소정양식 : 별첨)
나. 자필이력서(사진 첨부)
다. 학력증명서
라. 경력증명서
마. 업적 증명용 연구물 또는 활동 내역서, 성적 증명서
바. 具足戒, 受戒 증명서
사. 추천서 3통(총장 · 대학원장, 기타 기관 및 단체의 장)
4. 접수마감 : 2002년 06월 5일까지
5. 심사 : 불이상 심사 위원회
6. 수상자 발표 : 불교계 언론매체
7. 접수처 및 문의 : 불이상 심사 위원회
서울 강남구 개포 3동 186-1 개포 빌딩 6층
Tel (02)3411-6167~8 / Fax (02)3411-6169

不 二 會

# 당뇨·고혈압

## 당뇨병 혈당강하 조절제

국내약초 100%
야생약초 90% 生人정

▶ 혈액이 개선되며, 신체의 이상이 정상이 되며, 비만도 해소됩니다.
▶ 100% 우리나라에서 재배되는 약초이며, 90%는 야생약초로 사용하였습니다.
▶ 생인정은 일부는 덜이고 일부는 볶아서 배합하여 생산하였으며 일체의 첨가물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 생인정은 식품으로 먹는 약재만을 사용함으로써 부작용이 없습니다.

복용시 나타나는 현상

- 소변량이 증가하고 소변횟수가 줄어듭니다.
- 신장기능 약화에 의한 불쾌감이 해소됩니다.
- 불면증이 없어집니다.
- 관절의 통증과 불편이 없어집니다.
- 일반적 무기력감과 피로가 없어지고 원기 회복이 됩니다.
- 기진피부가 고와집니다.
- 고혈압 증상이 개선되고, 어지러움과 부종이 없어집니다.
- 대변이 황금색으로 변하고 대소변을 보고난 후에 시원한 느낌이 나타나고 방귀냄새가 없어지고 속이 편안해집니다.
- 복용초기에 눈꼽이 나오는 느낌이 오거나, 위장이 나쁜 사람은 속이 더부룩한 느낌이 나타나지만 점차 없어집니다.
- 간혹 체질에 따라 아픈 곳에 통증이 더욱 심해지다가 점차 없어집니다.
- 위의 설명은 체질이 개선되는 현상임으로 안심하고 꾸준히 복용하시면 정력과 활력이 솟아납니다.
- 신약을 복용중인 사람은 생인정을 함께 복용하면서 점차 신약을 줄여 15일 정도 경과후 신약을 완전히 중단합니다.
- 생인정 복용시 대부분 2주 이내에 개선현상이 나타나고, 간혹 체질에 따라 늦게 나타나는 수도 있습니다.
- 복용중 개선현상이 의심되면 구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복용분과 박스포장비 5천원을 공제하고 즉시 환불해 드립니다)




1개월분 ₩150,000

1일 3회, 1회 3~4정씩 섭취(나이와 소화능력에 따라 조절)

생 인 당
주문 및 상담 (054)281-0544